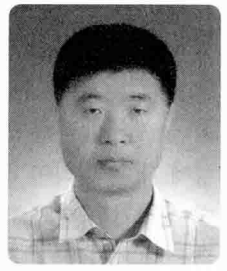




위기의 육우산업,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강 병 권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이사

지난 6월 성난 촛불 행진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축산인들이 함께 했고 “이정도 민심이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거야”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축산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국내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축산업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촛불 시위대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쇠고기 소비를 거부하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축산업계의 이해를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지난 7월 29일 4년 7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 재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논리로 볼 때 국내 축산업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기도 남을 만큼 거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가 약 220만두 정도인데 국내 사육두수의 약 50배에 이르는 약 1억마리의 신규 공급원이 마련되었으니 그 파급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We don't want!
USA B.S.E. beef imports

우리집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재협상' 하세요!

단 1%의 위험도 국민의 생명으로 사멸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 이후...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쇠고기 소비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새로운 현상들이 있어 몇 가지 짚어 보 고자 한다.

1. 단체급식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급식의 식재료는 시장에서 가장 싸고 질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식중 독 등 단체급식과 관련한 사고로 식품위생과 안전 성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최근 광우 병 쇠고기 사태와 맞물리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거 부하거나 아예 국내산 쇠고기로 전량 교체하는 새 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과 군급식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2.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현상

일반적으로 조사료 위주의 사육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호주산에 비해 곡물 위주의 사육 방식인 미국 산 쇠고기의 맛이 더 좋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미국 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지난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한다.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

지난 7월 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서 식당 손님들은 그 동안 내가 먹었던 것이 무슨 고기일까 궁금해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식당주인 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써오던 육우나 수입육을 한우나 국내산 육우로 바 꿔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원가상승에 대한 부

원산지 표시의 예



메뉴 (단위: 1인분)		
등심	국내산(한우)	3만원
갈비	미국산	2만5000원
불고기	국내산(육우)	1만원

담 때문에 그동안 써 오던 것을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는 원산지와 품종에 품질과 가격을 평가하여 구매하 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국내 육우산업의 위기와 과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국 내 육우산업이다. 정부는 축산농민들의 반발을 의 식해 쇠고기이력추적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송 이지안정제, 브루셀라 보상 등 다양한 축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이 한우산업 육성에 맞 춰져 있고, 국민들의 한우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 보다 고조되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우 산업도 높은 생산비와 장기 비육으 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육우산업의 위기를 말한다.

사료 값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은가?

정부의 한우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육우 농가만 소외 받고 있지 않은가?

육우고기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과연 얼마 나 가능한가?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비관적인 전망 과 평가가 끊이지 않는다.

육우산업이 위기임에는 분명하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련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견디고 이겨 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육우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먼저, 생산비 인하요인이 생기고 있다.

축산업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폭등이고, 국제 곡물가 폭등의 원인은 원유가 폭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랐던 원유가는 현재 9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곡물가도 상한가를 치고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고 약 6개월 이후에는 사료 값의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반전을 기대한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이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국내산 육우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아직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육우고기 취급을 기피하고 차라리 값싼 수입육을 취급하겠다는 식당이 늘면서 육류시장이 한우와 수입육으로 양극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

록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육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가 오히려 육우 시장 개척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셋째,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학교, 군대, 직장 등에 공급되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국내산 식자재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육우 고기의 시장 개척이 돋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2008년에 수입육을 대체하여 군납으로 공급되는 육우고기는 약 840톤으로 정육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생산량의 약 5%에 이르고 학교급식용 육우고기의 비중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

육우산업 주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우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이다.

지역	육우 농가수	육우 사육두수
강원도	72	2,404
경기도	861	64,099
경상도	455	21,285
서울/인천	94	6,974
전라도	291	13,324
충청도	465	38,949
제주도	11	378
합계	2,249	147,413

(자료 : 한국낙농육우협회 자조금추진위원회 확인 농가)

육우산업의 첫 번째 주체는 우리 육우농가이다. 생산재를 공급하는 사료회사·약품회사도 주체이고, 육우 고기를 판매하는 육가공업체도 주체이다. 농협도 주체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소도 육우산업의 한 주체라 할 수 있다.

위기의 육우산업을 살리려면 육우산업의 모든 주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육우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국내산 육우는 약 16만두 정도, 1억 마리의 미국소와 맞서 이기려면 육우산업의 모든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오히려 국내 육우 사육 두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훨씬 쉬울 수도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각 주체별로 노력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우산업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육우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육우에 대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을 육우산업의 실정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근남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바꾸고 국내산 육우의 비중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미FTA 대책으로 발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안〉

등급기준	육우		한우	
	금 액	출현율	금 액	출현율
1등급	100,000원	7%	없 음	27%
1*등급	200,000원	2%	100,000원	19%
1**등급	200,000원	1%	200,000원	7%
지원비율		10%		26%

(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년 1월~6월 평균)

농협중앙회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이 당연히 하나마트에 판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육우를 소외시켜 온 그 동안의 관행을

일소해야 하며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마당에 육우 고기 판매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일선 조합과 생산농가의 육우브랜드 개발 및 육성 그리고 산지 유통을 지원하고 단체급식용 식자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료 및 육가공업체들은 육우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투명한 유통 그리고 육우(고기)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오랫동안 육우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고기로 육류시장의 그늘진 곳을 지켜왔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육우산업이 생존할 수 없다. 육우산업과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료업체와 육가공·육우고기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육우브랜드를 적극 개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전국적인 조직화가 매우 어려운 육우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육우자조금”의 거출 등 육우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이러한 모든 주체의 동력을 이끌어 내려면 우리 육우농가의 협력과 단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리 스스로가 단결하고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육우농가 단결의 척도는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추진하는 “육우자조금사업에 대한 참여와 성과”가 될 것이다.

육우 자조금사업은 흩어져 있는 육우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그 동안 음지에 가려져 있던 육우고기와 육우산업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전령이 될 것이다. 육우 자조금사업을 통해 우리도 자부심을 가진 국내 축산인으로서 당당하게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